

活カ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4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568-6651~2
FAX. 568-6653
www.fipa.or.kr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착수 폐기물분포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어항협회 옥계·남도·소안항에서

한국어항협회는 정부로부터 수입받은 2002년도 수중 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강원도의 옥계항, 전남의 남도항과 소안항에서 이 사업을 우선 착공하였으며, 연근해 해역의 수중침적폐기물 분포 실태조사도 함께 착수했다.

한국어항협회가 올해 수중 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위해 확보한 사업비는 총 23억 원으로서, 이중 우선 지난 2일 착공한 옥계항은 6월 1일까지 6,625만 8천원의 사업비로 5.21ha에서 18.05톤, 8일 착공한 남도항은 6월 7일까지 9,493만 원의 사업비로 7.74ha에서 24.27톤, 20일 착공한 소안항은 6월 20일까지 1억 1,054만 7천원의 사업비로 10.05ha에서 16.32톤의 침적폐기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대상 항이 선정되는 대로 추가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일에 착공한 연근해 해역에 대한 수중침

적폐기물 분포 실태조사는 6억 원의 사업비로 오는 연말까지 서해특정해역 50만ha, 전북 고군산열도근해 2만ha, 부산근해 10만ha 등 총 62만ha에서 해양폐기물의 정확한 분포도 작성과 여기서 획득한 자료를 기초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실시계획도서를 작성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이 실태조사는 권역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실시되며,

■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 항별내역

항 별	사업비 (천원)	사업량 (톤)	사업면적 (ha)	사업기간
옥계항	66,258	18.05	5.21	5.2 ~ 6.1
남도항	94,930	24.27	7.74	5.8 ~ 6.7
소안항	110,547	16.32	10.05	5.20 ~ 6.20
계	271,735	58.64	23.00	

■ 연근해해역에 대한 수중침적폐기물 분포 실태조사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사업면적 (ha)	사업기간
600,000	수중침적폐기물 D/B구축 및 실시계획도서작성	620,000	5.4 ~ 12.31

6년간 40억 원을 투입하여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8년까지 총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조사지역에 대한 폐기물 수거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해양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바다를 보다 나은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여름 수해예방에 적극 대응

해양수산부 재해대책 본부 설치 운영

해양수산부는 태풍·호우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재해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재해대비 활동계획을 수립, 산하기관 단체에 시달했다.

해양수산부가 분석한 최근 5년간의 해양수산분야 재해현황분석 자료에 의하면 태풍·폭풍·호우·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총 29회로서 연평균 6회 정도가 발생하였고, 특히 6~9월에 연평균 4회로 집중되고 있어 여름철 폭풍·호우 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연평균 343억 원으로 이에 대한 복구비는 연평균 679억 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그중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75%(278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는 수산증양식 시설, 어항시설, 어망·어구 등의 순으로 나타

남에 따라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해에는 '88년 이후 처음으로 태풍피해가 없었으나, 여름철 재해기간중에 4회의 폭풍우로 105억 원의 피해가 발생, 연간 피해 197억 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복구지원비도 전체 272억 원 중 118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해양발전계획 10년마다 수립

앞으로 해양개발과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10년마다 세워지고 해양개발을 위한 해양수산발전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제정·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해양수산개발기본법'은 기존의 '해양개발기본법'을 대체해 해양의 합리적인 발전·관리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이념 및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해양수산정책 추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재해 대비기간'을 설정,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시는 본부와 11개 지방청에 설치된 '재해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는 등 기민한 상황 대처와 함께 피해 발생시에는 응급복구 등 신속한 조치로 2차 피해발생 등 피해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이 법의 공포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는 △해양개발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해양의 관리 및 보전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전 추진 △해양개발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해양수산개발기본법은 또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해양개발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이를 위한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용 △해양산업 육성 △해

양 환경·자원 및 생태계 등의 관리·보전과 해양안전관리 시책 △항만시설의 확충, 수산기술개발의 촉진, 해양개발 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사업화 지원 등 해양산업의 육성 시책 등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공포된 해양수산개발기본법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기존의 해양개발기본법은 폐지된다.

근래들어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급속한 차량보급의 증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어항어촌 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시인들이 인공공간의 가치보다는 자연공간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적·경관적 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친수공간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휴일을 맞아 근교의 산이나 공원에 한번쯤 나들이를 다녀온 경험 있다면 그 엄청난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는 현장을 몸소 체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할 필요없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확실히 어항어촌은 매우 신선하고, 매력있는 휴양지가 아닐 수 없다. 약 2만 5,962km의 해안선에 2,243개의 어항·포구와 1,796개의 어촌계 마을이 있는 우리나라는 어항어촌 관광에 대한 개발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어항어촌 관광패턴은 해수욕, 바다낚시, 횃집방문, 수산물 구입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어 여름 한 철을 제외하고는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어항의 기능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어항어촌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진정한 의미의 관광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반시설부터 갖추어야 한다.

기왕에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쨍쨍 때는 도시인 관광객들에게 잘 갖춰지고 정비된 이색적인 휴식공간을 연중 제공한다면 여가선용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어촌주민에게는 짝짤한 어업외 소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마음 편안하게 연중 언제, 어느 때 찾아와도 내 집같이 쉬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촌관광지화의 첫걸음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현재 우리의 여건상 단시일내에 이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07년까지 격포항 등 10개 기존어항에 대해 주변관광지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주차장 녹지공간 등 기능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선진포항 등 17개 신규어항은 기본시설 개발단계에서부터 다기능어항으로 계획, 환경친화형 체험공간 회전타 등을 유치키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2008년까지 관광안내소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등 어촌체험기반시설을 위주로 하는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전국에 60개, 실내전시관 야외전시장 시청각실 야외놀이마당을 조성하여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과 어업문화를 발굴·보존하여 어촌사회의 존립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어촌민속전시관을 2005년까지 9개소에 건립할 계획이다.

어항어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이 최근 들어 이와같이 활력을 띠고 있는데 발맞추어 어촌지역 주민의 의식변화와 관광마인드를 함께 제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어항어촌 관광활성화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면 어촌지역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마인드 제고 방안은 어항어촌 관광리더, 어항어촌 관광가이드, 마을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서비스매뉴얼 개발, 협의회 구성 운영 등이 있다.

여기서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만 일본의 어항개발은 이른바 마리노베이션 구상이라 하여 그야말로 모든 기능을 망라한 종합적인 어항을 정비하고 있으며, 앞서나가는 어항어촌의 경우 연간 5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어촌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 복지 등 종합기능을 고무케 하는 자연체험 등 국민에게 풍요로운 여유허 공간을 제공하는 어항, 도시와 어촌의 만남의 장, 국제교류의 장으로서의 어항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 창조요체로서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적 어항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항어촌 관광활성화에 바란다

동

정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柳三男 해양수산부 장관
▲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12일부터 17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태국 싱가포르 호주를 방문, 태국에서는 한·태국 해운협정 서명을 하고 양국간 협력증진방안을 협의, 이어 싱가포르에서는 정보교통통신기술부장관을 방문 항만개발과 운영 등 협력방안을 논의, 호주에서는 농림수산부장관과 만나 양국간 및 국제기구에서의 수산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이와함께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교섭활동을 전개, 29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7회 바다의날 행사를 개최.



孫井植 한국어합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5월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 '21세기 해양정책방향'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초청 강연에 참석, 9, 16, 23, 30일에는 광운대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강의, 11일에는 광운

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행정사학회 주최 춘계학술대회 '퇴계사상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에 참석, 20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밝은사회서울중앙클럽 월례회의에 참석, 22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육상기인 오염물질 해안배출관리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 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에 참석, 29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7회 바다의날 행사에 참석.
▲차석홍 수협중앙회장은 5월9일 전국수협조합장 및 수협중앙회임직원과 함께 수협연수원에서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협경영 정상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 10일에는 강원도 양양군소재 강원도 해안어업인 위원회에서 열린 해안어업인 위원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5월20일 광주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회에 참석, 23일에는 산경회 간담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5월9일 이한동국무총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 17일에는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진전 개막식에 참석, 21일에는 충남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23일에는 말레이시아총리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이어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5월6일 화순군향우회 장학회 이사회에 참석, 10일에는 제28회 보성다향제에 참석, 11일에는 광주시민단체 한마당축제에 참석, 15일에는

유당학원 창립 29주년 기념식을 개최, 19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제2차 응급처치법 시범대회에 참석, 20일에는 녹수장학회 이사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주남구협의회 주최 통일기원을 위한 남구민경기대회에 참석, 23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동회의에 참석, 24일에는 건설기능경기대회에 참석, 28일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간담회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14일 강원도지역 도로확포장공사현장에 출장.

서

▲해양수산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파견 부이사관 주성호(5.1)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장 부이사관 정유섭 △해양수산부 근무 부이사관 박정천(5.2)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행정사무관 이찬복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수산사무관 강운석(5.9)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부이사관 임광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선박서기관 조병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 서기관 정도안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서기관 유상정(5.23)

해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남화토건주식회사(회장

최상욱)
▲주식회사세일종합기술공사(회장 황호영)
▲주식회사삼안건설기술공사(회장 김기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장 차석홍)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병남)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성식)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수삼)
▲냉동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병인)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동길)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효식)
▲마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재열)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정전)
▲여수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복한)
▲울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오성웅)
▲한림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장서철)
▲인성실업주식회사(회장 박인성)
■개인
▲강국희씨(유한회사신원종합건설 회장)
▲강호석씨(해양수산부 어항어촌과)
▲고덕봉씨(전 한국어합협회 전무이사)
▲구자천씨(정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권오윤씨(주식회사세양인터네셔널 사장)
▲기호준씨(선박검사기술협회 관리본부장)
▲길호집씨(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6호 선장)
▲김기욱씨(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장)
▲김두원씨(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9호 선장)
▲김봉래씨(전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수산국장)

▲김성수씨(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4호 선장)
▲김용덕씨(주식회사부흥부사장)
▲김윤수씨(전 국립수산물진흥원 서해수산물연구소 기획과장)
▲김일제씨(주식회사달마부회장)
▲김종규씨(상명수산교역대표)
▲김종봉씨(전 국립수산물검사소 서기관)
▲김현주씨(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노승만씨(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분석과장)
▲민병훈씨(해양수산부 수산정책기획단 단장)
▲박기철씨(전 한국어합협회 전무이사)
▲박원길씨(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박재준씨(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박정태씨(전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상무이사)
▲박철훈씨(장흥군 해양수산과)
▲박호성씨(진도군 해양수산과)
▲서성룡씨(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
▲서승남씨(한국해양연구원 연안·항만공학연구본부장)
▲손승렬씨(주식회사대원건설 사장)
▲송예용씨(원양어업개발주식회사 상무이사)
▲송형준씨(제주는행 사외이사)
▲신관수씨(전 보고수산주식회사 전무이사)
▲신석순씨(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소 어항공사과장)
▲안익성씨(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항만부이사)
▲안창수씨(전 영남건설기술교육원장)
▲윤대현씨(D.M상역주식회사 사장)
▲이경희씨(국립수산물품질

검사원 부산지원관리과장)
▲이광수씨(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전무이사)
▲이기인씨(현우중앙회 사무총장)
▲이남교씨(해양수산부 공보관실)
▲이승현씨(남영건설주식회사 사장)
▲이용기씨(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
▲이용숙씨(전 수협중앙회 상무)
▲이윤한씨(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이재현씨(주식회사평원엔지니어링 사장)
▲이전호씨(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회장)
▲이정식씨(전 한국어합협회 전무이사)
▲이종만씨(주식회사새건설 대표이사)
▲이태일씨(마산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
▲임인규씨(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임종국씨(한국수산신보사 사장)
▲장봉환씨(OISCA한국총회 회장)
▲전병하씨(전 수산청 서기관)
▲전종남씨(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정척희씨(방산정밀화학주식회사 회장)
▲정해용씨(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전무이사)
▲조사연씨(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이사)
▲최재학씨(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최진식씨(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 전무이사)
▲피경만씨(주식회사신화엔지니어링 이사)
▲황열성씨(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성경총괄대리점 대표)
▲황찬우씨(전 수산청 사무관)
▲황철민씨(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장)

공공공사 전자입찰 의무화

재경부 국가계약법령 개정 추진

앞으로 공공공사는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입찰공고도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해야 하며 업체등록을 하고 등록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도입·운영됨에 따라 지금까지 관보와 일간신문, 게시판 등을 이용한 입찰공고 방식을 G2B 시스템을 통한 공고로 단일화해 업체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또 국내입찰의 경우 수기식 입찰 대신 전자입찰을 의무화

하되 국제입찰은 WTO(세계 무역기구)협정과 마찰 등을 고려, 수기식 입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등록과 부정당업체 제재통보, 계약실적 보고 등도 G2B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2B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의 경우 전자방식

으로 제출되지 않은 입찰서와 입찰자격 수정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처리된다.
재정부는 또 G2B시스템에 업체등록을 할 경우 다른 중앙관서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해 업체들이 발주기관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로 했다.

해양환경관리 대폭 강화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해양수산부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종합적·사전 예방적 해양환경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바꾸는 등 해양환경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규제

가 강화되어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있는 음식점 등에서 일정한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를 바다로 버리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를 할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도록 한 해역이용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된 사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의 남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육상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먼 바다에 배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를 보완, 해역별 총량을 산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폐기물 배출을 허용하는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시

민이 바다에서 폐기물 등 쓰레기를 수거·인양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어항청소선 소식

6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명	월일	지역(항)	선장	연락처
어항 901호	6.3~8 6.17~22	오천 선유도	최동립	(휴대폰) 011-247-5592 E-mail : 901@fipa.or.kr
어항 902호	6.11~20	어란진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E-mail : 902@fipa.or.kr
어항 903호	6.10~15 6.24~29	사동 사동(동송)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E-mail : 903@fipa.or.kr
어항 904호	6.10~15 6.24~29	신수, 팍전포 국동	박주중	(휴대폰) 011-232-5596 E-mail : 904@fipa.or.kr
어항 905호	6.10~15 6.24~29	삼덕, 능양 통영연안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E-mail : 905@fipa.or.kr
어항 906호	6.10~15 6.24~29	감포 대보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E-mail : 906@fipa.or.kr
어항 907호	6.10~15 6.24~29	거진 임원, 덕산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E-mail : 907@fipa.or.kr

바다환경보호
캠 페 인

바다사랑 나라사랑
우리모두 앞장서서

남 몰래 버린 오물
나 모르게 오는 때

다기능종합어항으로 정비해야

해양수산부, 체계적 개발방향 모색키 위해 '어촌어항관광 전문가 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어촌어항관광 전문가를 위촉,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업여건의 악화와 WTO-DDA 협상 등에 대응하여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어촌어항관광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박종국 어촌어항과장이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는 전문가로 위촉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규 실장, 한국관광공사 김향자 실장, 농업기반공사 조진훈 박사, 부경대학교 지삼업 교수, 한국어항협회 박해용 전무이사가 참석, 분야별 주제발표를 했다.

김성규 실장은 '관광 어항 어촌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어장축소, 연안오염 등으로 열악해진 어촌의 실태와 주5일제 근무제 도입과 함께 관광에 인식변화를 말하고 낙후된 어촌관광시설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장했다.

김향자 실장은 '어촌 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마인드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설 의존적인 일반관광개발과 보조산업으로서 주민들의 삶에 기반을 둔 어촌어항지역의 관광개발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어촌어항관광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박종국 어촌어항과장이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는 전문가로 위촉된 김성규 실장, 김향자 실장, 조진훈 박사, 지삼업 교수, 박해용 전무이사가 참석, 분야별 주제발표를 했다.

차이점을 말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의 변화 및 관광마인드 제고등과 함께 일본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조진훈 박사는 '어촌현실과 관광개발'이라는 주제로 노령화, 영세화된 어촌과 어장기반시설의 취약성 및 환경의 열악성, 개발정책의 부재 등 지금 어촌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 주민들의 의지를 기초로한 지역특성과 환경보전까지 고려한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강조했다.

지삼업 교수는 '관광 어항 어촌과 해양스포츠'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폐쇄적 육지문화 중심의 안목

과 상식을 지적, 세계적인 변화추세와 외국의 친수공간을 통해 조성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의 공간형태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맞는 모델을 제시했다.

박해용 전무이사는 '어항 기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변화되어 가는 레저, 관광, 휴양 등에 발맞추어 어항기능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 다기능 종합어항으로서의 정비추진과 주변관광지 등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등을 제시했다.

만산업의 경쟁력기반 확충, 동북아물류중심기지 구축, 수산물유통·가공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해양관광산업의 육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총 46개 사업에 6243억원을 투자해 해양수질의 입체적 관리,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사고에 대한 통합적·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 △해양지식산업의 진흥을 위해 19개 사업에 280억원을 투자해 첨단해양과학기술의 산업화, 해양수산지식경영시스템 구축, 과학기술력 제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20개 사업에 6702억원을 투자해 자원관리 및 기

제8회 어항어촌사진공모전 많은 응모바랍니다

한국어항협회는 선진어항어촌문화의 창달과 어항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로 일반국민이 친숙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한편,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개발의 촉진과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8회 어항어촌사진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주 제 : 어항어촌을 중심으로 수산업 및 관광·레저 등과 관련되는 모든 작품으로서 국내외 미발표 작품에 한함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출품기간 : 2002. 7. 8. - 7. 11. (우편접수시는 마감일 도착분)
- 출품규격 : 11" x 14" 칼라사진(출품표에 촬영장소, 촬영일시, 작품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필히 명기)
- 출품료 : 1인당 10,000원 (출품수: 제한없음)
- 심사 : 2002. 7. 18.
- 심사발표 : 2002. 7. 19. (개별통지)
- 시상일시 : 추후통보
- 시상내용
 - 금 상 (1점) 상패 및 상금 (1,000,000 원)
 - 은 상 (2점) " (각 500,000 원)
 - 동 상 (3점) " (각 300,000 원)
 - 가 작 (5점) 상장 및 상금 (각 100,000 원)
 - 장려상 (5점) " (각 100,000 원)
 - 입 선 (100점) 상장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 인정
- 접수처
 - 주 소 : 110-4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 전화번호 : (02)3673-2851(담당자 이준호)
- 기 타
 - 입상·입선작은 본회에 귀속되며, 낙선작은 작품집 포함 개별 반송함
 -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이종으로 출품하여 입상·입선 될 경우 입상·입선이 취소됨은 물론 회원은 징계조치되며 비회원은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회가 유보됨

어업생산기반 구축 위해 20개 사업에 6천억 투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0년까지 총 79조1253억원을 투입, 추진되는 해양개발기본계획의 2002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세부시행 계획은 해양국토, 해양환경, 해양지식산업, 해양서비스산업, 어업생산기반, 해양자원, 해양수

산외교 등 총 7개 분야 165개 사업에 걸쳐 총 4조1431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7개 사업 2천여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각 분야별 올해 주요사업 및 투자액은 다음과 같다. △생명·생산·생활의 해양

국토 창조를 위해 총 19개 사업에 5987억원을 투자해 미래지향적 연안국토관리, 200해리 시대에 걸맞는 해양주권 관리, 글로벌 해양전진기지 개척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해 42개 사업에 2조 2127억원을 투자해 해운항

제주어촌민속전시관 건립 12월 착공 60억 투자키로

제주도 어촌의 민속, 문화 유산 등을 전시할 제주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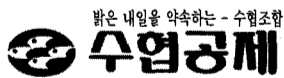
전시관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축면적 2,100㎡ 규모의 전시관 시

르는 어업 정착, 어업기반시설을 확충 △해양광물·에너지·공간자원의 상용화를 위해 11개 사업에 89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전방위 해양수산업외 및 남북협력 강화를 위해 APEC 해양장관회의의 창설, 글로벌 해양수산업외의 주도적 전개, 남북한

해양과학 공동연구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올해시행계획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사람들의 생활터전인 제주바다 등으로 설정, 전시공간을 세분화하도록 했다.

북제주군은 용역 중간보고서를 기준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다음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시계획을 거쳐 올 12월부터 오는 2004년 3월까지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을 들여 전시관을 완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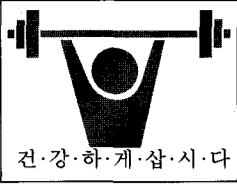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수협의 안전지대로 들어오십시오. 가장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 식중독 -

식중독이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임상증후군'을 말한다.

식중독의 원인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살모넬라균 식중독, 오염된 돼지고기, 튀김류, 김밥, 닭고기, 햄, 계란, 우유 등이 원인이며 복통, 설사, 오한,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비브리오 식중독은 생선회, 굴, 낙지 등을 날것으로 먹은 후 나타난다. 비브리오균은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곳에 많아 이런 곳에서 잡은 생선을 날로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 이 균에 감염되면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괴사를 일으키므로 치사율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흔히 발생하는 대장균 O-157은 오염된 고기, 우유, 치즈, 무순 등이 원인이며 피쉬인 설사, 심한 경우 복부 경련, 용혈성 요독증 등을 유발한다. 환자의 0.5%가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감염되면 별 증상 없이 지나가기도 한다.

식중독균은 대체로 열에 약하고 저온에서 잘 번식하지 못하므로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남은 음식을 냉장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을 따로 보관하고 날 음식을 썰 칼과 도마는 다른 식품을 자를 때 사용해서는 안된다.

야채를 손질할 때도 날고기를 썰 식칼로 다듬지 말고 상추 등 엽채류를 씻을 때도 한 잎씩 흐르는 물에 씻고 잎모양이 복잡한 브로콜리 등은 뜨거운 물에서 1분동안 데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음식물을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음식을 다루기 전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어패류는 반드시 5도 이하에서 냉장보관한 뒤 75도에서 15분 이상 끓여 조리해야 한다.

세균이나 독소가 저온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음식물의 냉장보관을 권한다. 그러나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쇠고기는 3~5일, 우유는 2~4일, 어패류는 1~2일 이상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조리된 음식은 깨끗한 식기에 담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하고 조리하고 보관함으로써 식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여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자가진단을 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신속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식품을 취급할 때는 2차오염 또는 교차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66]

第5章 콘크리트

제5장 콘크리트

5.1 공법 공사의 개요

5.1.1 일반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건설재료인 콘크리트는 어항공사

에 있어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방파제나 안벽 등의 어항건설이 해양구조물이고 콘크리트가 해수로 인한 부식 등에 강하다는 재료적인 특징 때문이다.

그러나 콘크리트는 파랑이나 표류물의 충돌 등으로 인한 해수의 침수로 인한 철근이나 PC 강재의 부식, 알칼리공해반응으로 대표되는 유해한 골재반응, 기타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점점 열화한다. 이때문에 내해수성이 풍부하고 유해한 골재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내구성·수밀성이 우수한 콘크리트를 시공할 필요가 있다.

본장에서는 콘크리트의 목재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시공순서나 시공방법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설명에 한정시킨다.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각장(제6장 케이슨공, 제7장 콘크리트 블록공, 제8장 수중콘크리트공, 제12장 상부공 참조)에서 기술하기도 한다.

표 4.5.3 심층혼합처리공의 규격 관리기준

공종	관리항목	측정방법	측정밀도	측정단위	결과와 정리방법	관리기준치
심층혼합처리	위치	트랜시 및 광파측거기로 측정	개량말뚝전수	1cm	관리도에 측정결과를 기입하여 제출	
	연직도, 접합	트랜시 및 경사계등으로 처리기의 연직도를 측정	깊이방향으로 5m 정도마다 측정(인발과 관입시)	1분 또는 1cm	개량말뚝 선단부의 궤적도를 작성하여 제출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천단고 선단깊이	심도계, 와이어조출길이, 조위계, 전현 및 처리기 등으로 확인	개량말뚝전수	1cm	타설기록지에 천단고, 선단깊이를 기입하여 제출	천단고 + 규정하지 않음 - 0 선단깊이 + 0 - 규정하지 않음
	경화재 토출량	유량계 등으로 경화재 m당의 토출량을 확인	동 상	1ℓ 또는 1t	타입기록지에 경화재 토출량을 기입하여 제출	
성토량	음향측심기 또는 레드로 측정	개량전, 개량 후		10cm	성토량의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	

잘못 나온 전기요금·전화요금 돌려받기

공과금 납부 고지서 확인과 영수증보관이 생활화되어야

전기·전화 요금이 잘못 부과돼 낭패를 겪은 소비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이미 낸 돈 돌려받기 힘들고 잘못 부과된 요금 시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만큼 환불 체계나 요금 정정 체계가 복잡해 소비자가 요금을 시정받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해당 기관을 몇 번 왔다갔다 하고 담당자와 고성이 오고간 뒤에야 해결을 보기 일쑤다.

전기 요금이나 전화 요금은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요금 산정 과정에서 거의 착오가 없으나 워낙 사용하는 가정이 많다 보니 간혹 잘못 부과될 수 있다. 또 검침원이 사용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잘못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공과금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사용한 것보다 과다하게 나왔는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냈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 고지서가 날아들 수 있으므로 이중 납부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두고 요금별로 시정 요령을 알아두어야 한다.

전기요금

●가정집인데 평소보다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왔다
전기 요금이 평상시보다 2~3배 가량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때

는 검침 착오나 계량기의 고장, 누전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검침 착오는 검침원이 숫자판을 잘못 읽는 경우다. 예컨대 1을 7로 3을 8로 기재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월 검침일에 사용량을 확인하여 기록해두었다가 전기 요금 청구시 대조해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검침일은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 맨 앞 두자리수다.

검침이 잘못되었다고 확인되면 한전 고객센터(080-777-123)이나 123번 또는 인터넷(www.kepco.co.kr) 사이버 지점을 클릭해 신고하면 전기 요금을 정정받을 수 있다.

정정받은 전기 요금은 환불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달 전기 요금에서 잘못 나온만큼 빼고 청구가 된다. 대단위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하므로 이럴 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검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량기 고장으로 과다하게 요금이 청구되었다. 납기일이 다가오는데 요금을 내야 하나?

계량기 고장이 확인되면 인터넷이나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고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나와 검사를 해주는데, 계량기

에 이상이 있다고 밝혀지면 고장 나기 전 3개월 간의 요금을 합산·평균해서 다시 산정 해준다. 계량기는 무료로 교환해준다. 그러나 자연적인 고장이 아니고 소비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고장이 났을 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누전으로 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는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누전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기기의 코드를 빼고 전기 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계량기의 원판이 계속 돌아 가면 누전일 확률이 높다. 집안에서 누전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직접 전기공사 업체에 의뢰해 수리해야 한다.

●착오로 전기 요금을 이중 납부했는데 어떻게 돌려받나?

환불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다음달 전기 요금에서 감액 정산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관할 한전 창구에서 직접 환불받는 방법이 있다. 직접 환불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이중 납부 영수증 2매를 지참하고 관할 한전을 방문하면 된다. 세 번째 방법은 본인 통장으로 계좌 입금 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실명 예금 통장 사본과 이중 납부한 전기 요금 영수증 2매를 팩스나 우편으로 관할 한전에 보내면 본인 계

좌로 입금해준다.

전화요금

●전화 요금이 지난달에 비해 과다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전화 요금의 경우 사무나 컴퓨터 착오로 잘못 부과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이와 관련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지된 전화 요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해당 전화 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고 통화내역서 발급을 요청한다. 통화내역서에는 날짜와 전화 번호가 나타나 있어서 요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통화내역서 상에 이상이 있을 때는 선로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석달 전 전화 요금이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왔다. 직장 일이 너무 바빠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이라도 이의 제기할 수 있나?

부당 요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이의 제기할 수 있으나 한국통신의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부당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 가능 기간을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전화 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요금 내역을 확인해 과다하게 나왔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한다.

또한 미납 금액이 3만원 이상 이면서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므로, 부당 요금이라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 자칫 소비자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요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사업자가 고객센터로 문의한다.

●전화 요금이 1백만원이 넘게 나왔다. 정보이용료가 청구돼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간혹 10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700이나 600, 800 음성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서 과다하게 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유료 게임이나 유료 정보를 사용하고 전화 요금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10대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를 인지시켜 전화 요금에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년 전 사용한 전화 요금을 내라며 미납통지서가 날아왔다. 전화 요금의 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다. 소멸 시효란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대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8년 전 전화 요금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후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사업자 측에 소멸 시효가 지났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한다.

생활정보

생활정보